

출판물의 미국시장 공략

우리책 수출하기 ①

조승훈

윤지서적 외서부 사장

출판업도 우리나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의 진출이 가능한가?

우리 출판물의 미국시장 공략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출판물의 미국시장 진출을 생각해 본다.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시장'과 '상품'이다. 시장과 상품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냐 하는 데에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가지가 꼭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출판물의 미국시장공략 문제를 시장과 상품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시장의 규모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에 관한 영문서적'의 규모는 730여종에 달한다. 이것은 1996년도판 *Books-in-Print*의 Subject Guide(미국 종합출판도서목록의 주제별 안내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집계한 것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종교·언어·여행안내 등 40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시장에 적합한 서적이랄도 *Books in Print*에 포함되지 않은 책은 ISBN(국제표준서적번호)을 배정받지 않은 책이다.

뒤에 좀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ISBN이 없는 책은 우선 컴퓨터의 사용이 절대적인 유통과정에서의 불편 때문에 별도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BIP에 실리지 않

때문에 학자나 도서관 사서의 시야에서 제외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출판사 분석

BIP에 열거된 730여종의 서적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서 그 중 하나의 유통방식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730여종의 책을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대형 종합출판사: 대형 종합출판사가 펴내는 서적은 영어권 일반독자들 누구나 관심이 있으며, 정보가 필요한 주제이다. 여행안내서, 한국전쟁 관련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관심과 정보에 대한 폭과 길이는 넓고 길어지고 있다. 자체의 판매망을 통해서 전국 서점에 공급하고 있다.

대형 종합출판사는 간혹 자신들이 출판하지 않은 다른 출판사의 서적을 자신의 판매망을 통해서 유통시켜주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 Kodansha의 영문서적은 FSG를 통해서 서점에 공급되고 있다. 거대한 미국 명문출판사의 마케팅 조직의 도움을 받아 영어권 전체를 빈틈없이 커버하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대학 출판부, 전문도서 출판사 및 연구기관: 학자들의 수요가 일반독자의 수요를 능가했기 때문에 한국관계도서를 집중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대학교 출판부가 생겨났다. 이 중 하버드대학 출판부는 예외없이



지난 '96 서울국제도서전 중 <세계로 가는 한국출판특별전>.

자체출판 또는 영문번역을 하고, 반면 하와이대학 출판부나 워싱턴대학 출판부의 경우는 다른 출판사의 출판물을 자신의 출판물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점 공급은 대형종합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자체 판매망을 통한 유통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양관련서적 전문출판사 또는 도매상: 미국이나 영어권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크기 때문에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가지 출판사의 출판물을 모아 공동으로 공급하는 도매상이 많이 생기고, 전략적 이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분야를 전문화하는 출판 및 도매상이 등장한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지니지 못한 소형출판사에서 출판한

한국관계 영문서적은 이런 도매상을 통해서 유통되어왔고 앞으로도 이 유통과정이 쉽게 열릴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영문서적을 출판하는 한림출판사도 오랫동안 이런 유통방식을 통해 공급해 오고 있다.

▲특수서적의 직접판매: 연합통신에서 매년 펴내는 *Korea Annual*(연감)은 출판물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미국전역에 직접 공급하는 유통방식을 택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주문보다는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의 서적·학술지 공급업체인 Baker and Taylor나 Faxon을 통한 주문이 더 많다. ❖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주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당: 김혜경

연락처: TEL. (02)271-0494
FAX. (02)271-0495

1. 전국 일간지 출판기자 100여 명과 격일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껏 너댓 종류의 신문스크랩만으로 자료조사를 끝냈다고요?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자료집 「출판정보」는 전국 60여 개 일간지와 중요 주간지의 출판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합니다.

2. 21세기의 새로운 화폐는 정보입니다

출판인을 위한 유일한 종합정보지 「출판정보」는 기획, 독자시장, 마케팅 흐름, 출판계동향, 신간정보, 지역정보, 해외정보 등 출판에 꼭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매체」입니다.

3. 무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합니다

-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 제공
- 자사의 중복기사를 따로 스크랩하여 팩스로 전송
- 보관용 바인더 제공과 신간정보 무료 게재

발간형식: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